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 인접쌍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혜 진

2009 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 인접쌍을 중심으로 -

정소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교 영어교육전공

김혜진

# 인 준 서

김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영어교과서 1학년 3종, 2학년 3종, 3학년 2종의 대화문을 대화 분석적 관점 중 인접쌍을 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1학년 2종, 2학년 2종, 3학년 2종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7과 2009개정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분석에 앞서 인접쌍을 기준으로 대화분석을 한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고, 다수의 논문이 기존 학자들의 인접쌍 항목을 가지고 대화문을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대화문의 인접쌍은 기타로 분류 되어 그 기능을 살펴 볼 수 없었으며, 분석대상 교과서가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듯 학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인접쌍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은 기타로 분류된 대화문의 인접쌍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인접쌍의 총 항목을 보여주지 못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존 학자들의 인접쌍 항목을 차용하여 분석을 한다면, 분석대상 교과서의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 알기보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인접쌍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대상 대화문의 인접쌍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인접쌍 항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인접쌍

항목은 총 19개이며, 그 종류는 ‘질문-대답’, ‘인사-인사’, ‘주장-동의/반대’, ‘요청-수락/거절/확인’,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허락-수락/거절’, ‘축하/감사-수용’, ‘충고-수용/비수용’,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호응/비호응’, ‘정보제공-확인’,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정보제공’, ‘정보제공-위로/격려’, ‘정보제공-제안’, ‘정보제공-축하/칭찬’, ‘정보제공-감사/사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을 ‘명확하게 분류 가능한 10개의 항목’, ‘8개의 정보제공-세분화된 반응의 항목’과 ‘기타’ 총 19개의 항목으로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항목을 분류하고 그 수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 교과서의 대화문에서는 ‘기타’를 포함한 19개의 인접쌍 항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모두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그리고 ‘요청-수락/거절/확인’이 2007개정에서는 약 67%, 2009개정에서는 약 74%를 차지했다.

결과를 정리하면 2007과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이 다양한 기능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지만, 대다수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의 인접쌍 항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2007개정이 2009개정보다 그 분포가 약 7%정도 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2009개정보다 2007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가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더 기여하도록 제작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또한 앞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중학교 영어교과서가 학생들이 다양한 인접쌍에 골고루 노출되어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접쌍의 학습 빈도를 비슷하게 분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3
1.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 .....	3
2. 대화문의 효용 .....	8
3. 인접쌍 .....	10
4. 선행연구 .....	13
III. 연구 방법 .....	17
1. 분석 대상 .....	17
2. 분석 기준 .....	18
3. 자료 분석 .....	23
3.1.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영어교과서 대화문 인접쌍 분 석 .....	23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45
1. 연구 결과 .....	45
1.1. 인접쌍 분석 결과 .....	45

V. 결론 .....	85
1. 결론 .....	85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1> 교과서의 분석 범위 .....	17
<표2> McLaughlin의 인접쌍과 변형된 인접쌍 비교 .....	20
<표3>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3 종 전체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45
<표4>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 중학교 1~3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47
<표5>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B 중학교 1~3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49
<표6>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 중학교 1, 2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52
<표7>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1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54
<표8>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2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56
<표9>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3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58
<표10>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대화문의 출판사별 인접쌍 분포 비교 .....	60
<표11>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영어교과서 2종 전체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61
<표12>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의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62
<표13>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의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65
<표14>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67
<표15>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2종의 중학교 2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70
<표16>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2종의 중학교 3학년 영 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	71
<표17> 출판사 A, B, C의 2007과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전체 비교 .....	74
<표18>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 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출판사별 비교 .....	76
<표19>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 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출판사별 비교 .....	79
<표20>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 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출판사별 비교 .....	82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외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양한 대화 상황과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맞추어 영어과 교육과정 역시 그 목표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맞추어 보완하고 있으며 학교 영어 교육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민찬규, 2008).

EFL 학습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환경 조건에 차이가 있고, 접촉하는 언어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영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고 학습자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자료가 교재에 포함되어야 한다(배두본, 2002).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어 교과서이다. 원어민 화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중등 교실수업에서는 교과서가 영어교육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대의 영어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토대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현장 수업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제시하여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자료로써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근, 2002).

최근 7차 영어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과 함께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2007 영어과 교

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선하여 반영되었다.

첫째,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와 이에 따른 예시문 제시 방법은 어떤 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념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의 유형과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부 2009개정안 주요내용, p73-77)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활동의 구성은 2007영어과 교육과정과 동일하나 실용영어 능력을 강화시키기로 한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의 수를 늘리고 듣기, 말하기가 관련된 기능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소영, 2010).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전 학년의 영어교과서 3종을 선정해 대화문을 인접쌍, 대화문의 길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정 교과서의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기능과 의사소통 표현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대화문의 길이를 비교 분석하여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이 개정 이전과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정의, 대화문의 효용성, 대화분석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을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기준을 제시한 다음, 실제로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교과서를 선정하여 대화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다.

제 4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전 학년의 영어 교과서 1학년 3종, 2학년 3종, 3학년 2종을 선정하여 교과서의 대화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3종 교과서의 대화문을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적 관점 중 특히, 인접쌍(adjacency pairs)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 학년의 교과서가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의 종류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대화문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이상 차례 교환(exchange)으로 분류하여 교과서가 어떤 다양한 길이의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1~3학년의 영어교과서 2종의 대화문의 인접쌍과 대화문의 길이를 분석하여 위의 내용과 비교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적인 교육목표와 의사소통능력의 정의, 대화문의 정의, 대화분석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주제인 교과서 대화문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의 관점 중 인접쌍 이론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의 정의

Chomsky(1957)의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에서 비롯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현재 영어 교육의 목표로서 강조되고 있다. Chomsky(1965)는 동질적인 언어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완전무결하게 사용 할 줄 아는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가 그 언어에 대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언어 수행(language performance)이라고 하여 두 개념을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어 능력은 언어 구조에 관한 추상적이고도 총체적인 지식이며 유한의 법칙으로 무한의 문법적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인 것으로 보았다. Chomsky(1984)는 이러한 능력을 다음과 같이 문법적인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 1) 어떤 문장이 문법적인지 아니면 비문법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 2) 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말해 보지도 못한 수많은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

- 3) 표면상으로는 서로 다른 문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
- 4) 표면 구조상 한 문장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즉 문장의 모호성(ambiguity)을 알 수 있는 능력

하지만 언어의 실제 사용 측면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언어 형식의 습득만을 강조하는 Chomsky의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의 개념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언어 능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Campbell & Wales 1970).

Chomsky의 언어능력과 구별하여 Hymes(1970)는 언어학적 측면의 지식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의 지식 즉, 실제적 사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문법규칙 이전에 이를 유용하게 해주는 언어사용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문법성과 수용가능성만으로는 언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Hymes는 언어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 사용 규칙이 중요하며, 전통적 언어 능력에서 문법성과 적합성 이외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을 언어 지식과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나누어 보았다. 언어 능력을 문법적, 심리 언어적, 사회-문화적 지식의 4가지 영역을 통합한 것을 의사소통능력이라고 지칭하였고 일반적으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으로 여겨지는 Chomsky의 언어능력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 한 것이다.

Canale & Swain(1980)은 가장 중요한 언어능력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발화를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의

사소통 능력을 네가지 요소로 분류했다.

1)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어휘항목의 지식, 형태소, 동사 문장의 의미 및 음운 등의 규칙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Chomsky가 말하는 언어능력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형태소, 문장, 음성적인 특징을 익히고 이와 같은 요소를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여러 사회 언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의미와 형태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모국인들은 이 규칙들을 잘 알고 상대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다.

3)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연결된 글이나 말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일정한 상황에 맞게 말이나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때로 문장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세상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문맥에 따라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상황에 알맞은 말이나 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의사소통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언어수행의 변수 혹은 불충분한 언어능력을 보일 때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휘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대화 도중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말을 바꾼다던지, 돌려 말을 한다 던지, 반복하거나, 회피하는 등

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Savignon(1983)은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을 의사소통능력의 기저 체계로 보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어휘나 사회 언어학적 규칙을 가리키고 기능은 실제 상황에서 지식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의 이론적 기틀로는 문법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그리고 전략적 능력을 구성요소로 보았다.

한편 Bachman(1990)은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로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들었고, 그 중 전략적 능력은 언어영역 외부에서 작용하는 독립적인 능력으로 최종적 언어행위의 집행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 1) 세상지식 (knowledge structure: knowledge of the world)
- 2) 언어능력 (language competence: knowledge of language)
- 3)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 (strategic competence)
- 4) 심리기제 (psychological competence)
- 5) 상황 (context of situation)

Bachman(1990)은 기존 정의와 달리 전략적 능력을 언어 능력과 분리시켜 의사소통 능력의 독립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전략적 능력은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행할 수 있는 중추적인 능력으로 인지력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았다. 즉 언어 능력 모형은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범주보다 광범위하고 상대적이며 포괄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는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 즉 언어 능력, 전략적 능력, 그리고 심리-생리적 기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내렸다.

심리학적기제는 학습자가 억제심리(inhibition)를 극복하고 오류(error)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목표어로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외국어 소통 능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정서적인 면에서 심적 억제심리 없이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짐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가 의사소통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언어 능력이 상황인식과 심리 생리학적 기제, 전략적 능력과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로는 언어능력(LC) + 의사소통 능력(CC) = 언어숙달(Proficiency)라고 한 Zelson(1976)이 있다. 그는 어휘, 음운, 형태, 구분의 기능(skill)에는 언어적 단위, 집합, 체제 등이 포함되는데 언어의 이러한 구성성분이 사용되는 규칙에 통달하는 것을 언어능력이라고 하고 의미(message)를 받아들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보았다.

한편 Allwright(1979)는 언어능력의 일부분은 의사소통능력과 무관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언어능력 즉, 의사소통능력을 교육하게 되면 언어능력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것이므로 영어 교육의 목표는 문법적 능력과 사회 언어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도록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Brown(2000)은 Canale과 Swain(1980), Savignon(1983)이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을 특정 상황 속에서 상호 간에 의미를 협상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재해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능력을 언어학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즉,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따라서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은 언어 체계 그 자체에 대한 사용을 말하고, 사회 언어학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더

반영하고 있는 보여준다.

## 2. 대화문의 효용성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규정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되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중심인 교실에서 주요 학습 자료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 교과서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문 역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상황에 맞는 적합한 표현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교과서의 대화문을 통해 간단한 감정표현, 인사 방법, 지시 방법 등의 짧고 쉬운 표현을 배워서 당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에 대한 적응 방법, 질문과 응답에 관한 형식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언어적 표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안혜련, 2005) 그래서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모형을 제시하는 교과서 대화문은 역동적이어야 하며, 특히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영어와 유사할 필요가 있다.(유제명, 1994)

Dobson(1975)은 대화문이 생명력과 사회성을 지녔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매체라고 말하며 대화문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대화문은 실제적인 사회적 맥락(context)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는 실용적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둘째, 대화문은 여러 가지 문법 형태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대화문은 그 형식이 간결하며, 실제적 상황 내에서 낱말이나

문장들이 그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를 외우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암기한 표현은 활용가치가 높다.

넷째, 대화문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는 두 화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대화문은 언어의 문화적인 면을 갖고 있다.

다섯째, 학습자는 대화문을 통해 여러 역할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는 학습한 외국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Broughton(1980)도 대화문이 모든 형태의 대화문에 적합한 교수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의사소통의 본질인 사람들의 언어 상호작용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음운, 어휘, 문법적 내용의 학습과 언어의 의사소통 개발을 위한 언어학습에도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의 여러 가지 구성들 중 대화문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신장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Dobson(1975)은 좋은 대화문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화문의 길이는 교실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도록 말 교환이 A와 화자 B가 한 번씩 주고 받는 것, 즉 교환이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은 대화문이다.

둘째, 좋은 대화문은 대화의 종결행이 적절히 형성되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자는 여기서 Dobson이 제안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구성 되어 한다는 것을 실제 영미문화권 화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대화 상황들을 대화문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접쌍과 대화문의 길이를 분석하여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

해 제작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이 다양한 대화 상황(context)과 적합한 대화문의 길이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인접쌍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집필된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 내 대화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화분석은 대화 참여자가 말을 주고 받는 대화문을 토대로 말차례 체계의 문제, 대화의 순차적 구조의 문제, 인접대귀구조, 선호조직, 수정현상, 주제의 전개 등 대화상에서 대화참여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사회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화분석 개념 중 인접쌍을 기준으로 대화문을 분석했기 때문에 인접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인접쌍은 담화문의 담화 연구 분석에서 기본이 되는 구조이다. 즉 대화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다른 문장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며, Shegoloff와 Sacks(1973)가 규정한 인접쌍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접해야 한다.
- 2) 각각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되어야 한다.
- 3)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 4) 특정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가 정형화 되어야 한다.

즉, 첫 번째 부분인 FPP(first pair part)에 두 번째 부분 SPP(second

pair part)가 따르게 되면서 대화는 순서를 이루게 되어 쌍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접쌍에서 대화는 항상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뉘게 되며, 현재의 화자(current speaker)가 첫 번째 부분을 발화하면 이어서 다음 화자(next speaker)가 두 번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Deppermann(2002)은 이 과정에서 선행하는 문맥의 중요성을 '조건적 관여성(conditional relevance)'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 발화는 선행하는 문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후속하는 발화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질문-대답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발화인 질문이 다음 발화인 대답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화자 스스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어느 정도 청자의 답변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로 대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Yule(1996)은 FPP에 인사, 질문, 대답, 제안, 요청, 칭찬, 불평 등으로 발화를 시작하면 이에 대응하는 SPP에는 FPP에 맞는 합당한 방식의 대답, 수락, 거절 등의 답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Schmidt(1983)는 다음과 같이 인접쌍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Schmidt(1983)가 제안한 인접쌍

- 1) 인사-인사
- 2) 호출-답변
- 3) 질문-대답
- 4) 작별인사-작별인사
- 5) 칭찬-수용/동의/거절/이동/대답
- 6) 불평-사과/거부/변명/정당화/도전
- 7) 제안-수용/거절

#### 8) 요청-승인/연기/도전/거절

McLaughlin(1984)에 의하면, 인접쌍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화행의 확장 가능한 쌍으로 첫 번째 발화가 두 번째 발화의 행동을 위한 “슬롯(slot)”을 정하고, 두 번째 발화는 첫 번째 발화에서 표현되었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한다.

McLaughlin(1984)이 제시한 인접쌍의 종류는 질문-대답, 호출-대답, 인사-인사, 칭찬-수용/거부, 끝맺음-끝맺음, 사과-수용/거부, 요청-수락/거절,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 비난-거부/인정, 주장-동의/반대, 자랑-인정/조롱 등이 있으며, Levinson(1983)은 Pragmatics에서 질문-대답, 충고-수용/거절, 요청-수용/거절, 제의/초대-수용/거절, 평가-동의/반대, 비난-부인/인정, 인사-인사, 호출-대답 등을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McLaughlin(1984)이 제안한 인접쌍

- 1) 질문-대답
- 2) 호출-대답
- 3) 인사-인사
- 4) 칭찬-수용/거부
- 5) 끝맺음-끝맺음
- 6) 사과-수용/거부
- 7) 요청-수락
- 8) 위협-대응
- 9) 모욕-반응
- 10) 도전-대응

- 11) 비난-거부/인정
- 12) 주장-동의/반대
- 13) 자랑-인정/조롱

Levinson(1983)이 제안한 인접쌍

- 1) 질문-대답
- 2) 요청-수락/거절
- 3) 평가-수용/거절
- 4) 제의-수용/거절
- 5) 인사-인사
- 6) 감사-감사
- 7) 충고-수용
- 8) 비난-인정
- 9) 호출-대답
- 10) 사과-수용/거절
- 11) 도전-대응
- 12) 주장-동의/반대
- 13) 자랑-인정/조롱

#### 4. 선행연구

본 연구는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을 인접쌍 분포 분석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용(2003)은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1학년 영어교과서 중에서 각각 5종을 선택하여 대화문을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대화문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화제, 참여자의 관계, 장소, 시간, 대화문의 길이, 말 순서의 교대, 인접쌍, 대화양식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담화분석의 기준인 대화문의 길이와 인접쌍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문의 길이는 대부분 3~10번 안에 이루어 졌고,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은 대화문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경향이 보인다고 결론을 내보였다.

인접쌍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질문-대답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6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은 비난-인정/거부와 자랑-인정/조롱의 항목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다고 했고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다룬 호출/대답과 평가-수용/거절의 항목은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김미연(2004)은 Gibbs의 13가지 요청 유형을 기준으로 4종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문을 분석한 결과 4종 영어 교과서의 요청 대화 예문은 공통적으로 50%를 상회하여 직접 질문 요청 유형을 사용하는 편중현상을 보인다고 했다. 즉, 한 유형에 치우쳐있어 직접 질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12가지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거나 드물게 보인다고 했다. 또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요청 유형을 교과서에서 다루기를 기대했지만 예문을 분석한 결과 요청 유형 표현은 지속적으로 직접 질문의 유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이현정(2009)은 의사소통 과정과 예시문 부문의 대화문을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응답표현에 대해 2007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25종과 현행 교과서 14종을 포함한 총 39종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에 제

시된 인접쌍의 유형을 5가지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개정교과서가 현행 교과서에 비해 인접쌍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선호적, 비선호적인 응답에 따라 구분한 결과 그 구분에 따라 인접쌍이 단순한 대화로 끝이 나가거나 혹은 연속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선호적 응답일 때는 단순 의견 교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선호적 응답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복합 의견 교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교과서 대화문에서 선호적 응답보다 비선호적 응답의 비율이 낮았고 그 결과 지속적인 발화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대신 단답형 대화인 단순의견교환으로 대화가 종결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이 논문의 연구자는 앞으로 교과서 편찬과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의 바람직한 구성은 대화문에서 인접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교과서 대화문에서 인접쌍의 응답이 선호적 응답으로 편중된 현상이 바람직 하지 않으며, 분석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비선호적 응답이 발화의 다음에 바로 이어질 때 연속적인 복합 의견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지원(2010)은 2007년 개정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선정하여 교과서 내의 대화문을 인접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과서내의 인접쌍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질문-호출’, ‘호출-대답’, ‘인사-인사’, ‘칭찬-수용/거부’, ‘끝맺음-끝맺음’, ‘사과-수용/거부’, ‘요청-수락/거절’,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 ‘비난-거부/인정’, ‘주장-인정/조롱’, ‘제의-수용/거절’, ‘충고-수용/거절’, 기타의 16개 분류 항목 중 ‘위협-대응’, ‘모욕-반응’, ‘도전-대응’을 제외한 13개의 인접쌍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 ‘기타’, ‘제의-수용/거절’의 인접쌍이 약 77%로 차지하고 있는 편중 현상을 보인다

고 했으며, 다른 연구자의 인접쌍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다양한 발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접쌍의 종류를 교과서에서 소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한, 교과서 내에 나타난 인접쌍을 선호구조와 비선호구조로 분류한 결과 선호 구조는 약 80%, 비선호구조는 약 8%로 아주 불균형한 분포를 보였고, 어느 구조인지 알 수 없는 영인접쌍의 경우도 약 12%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비선호구조와 선호구조의 응답 비율을 비슷하게 제시해줌으로써 학습자가 발화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교과서는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중학교 1학년 3종, 2학년 3종, 3학년 2종의 교과서이다. 1학년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고, 2학년과 3학년의 교과서는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각 학년의 3종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3학년 교과서 3종 중 1종은 출판사의 재고문제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1> 교과서의 분석 범위

	저 자	출 판 사	학년	분석부분	단원수	대화문수
A	김성곤 외 10명	두산동아	1학년	Listen and Talk Put it Ttogether Check Up Listen and Speaking 및 본문 외 기타 대화문	10	135
			2학년		10	162
			3학년		10	132
B	배두본 외 23명	(주)미래엔	1학년	Listen and Talk Conversation zone	10	144

			2학년	Real-life zone + Quiz&check up	10	117
			3학년	Test yourself 및 본문 외 기타 대화문	10	112
C	이재영 외 10명	천재교육	1학년	Warm up Listen and Speak Bring together Read & Do Build up	11	77
			2학년	Think and Write Let's check Review 및 본문 외 기타 대화문	11	124

## 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분석 대상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그 항목의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 1) 인접쌍 (adjacency pairs)

본 논문의 연구자는 분석에 앞서 인접쌍으로 대화분석을 한 기존의 논문들을 살펴보고, 대화문 분석을 한 다수의 논문이 기존 학자들의 인접쌍 항목을 가지고 대화문을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대화문의 인접쌍들은 기타로 분류 되고, 분석대상 교과서가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듯 학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인접쌍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은 항목에 없는 인접쌍 종류를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다루는 인접쌍의 총 항목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존 학자들의 인접쌍 항목을 차용하여 분석을 한다면, 분석대상 교과서의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 알기보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인접쌍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문의 인접쌍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인접쌍 항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인접쌍 항목은 총 19개이며 그 종류는 ‘질문-대답’, ‘인사-인사’, ‘주장-동의/반대’, ‘요청-수락/거절/확인’,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허락-수락/거절’, ‘축하/감사-수용’, ‘충고-수용/비수용’,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호응/비호응’, ‘정보제공-확인’,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정보제공’, ‘정보제공-위로/격려’, ‘정보제공-제안’, ‘정보제공-축하/칭찬’, ‘정보제공-감사/사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을 ‘명확하게 분류 가능한 10개의 항목’, ‘8개의 정보제공-세분화된 반응의 항목’과 ‘기타’ 총 19개의 항목으로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분류하였다.

<표2> 분석 대상 교과서 대화문의 기능을 토대로 제안된 인접쌍 항목

인접쌍 항목
1. 질문-대답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3. 허락-수락/거절
4. 요청-수락/거절/확인
5. 주장-동의/반대
6. 인사-인사
7. 축하/감사-수용
8. 충고-수용/ 비수용
9. 위로/격려-감사
10.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11. 정보제공-호응/비호응
12.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13. 정보제공-확인
14. 정보제공-감사/사과
15. 정보제공-축하/칭찬
16. 정보제공-위로/격려
17. 정보제공-정보제공
18. 정보제공-제안
19. 기타

논문의 분석 기준이 될 인접쌍 항목은 19가지이며, 이 기준은 교과서 대화문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인접쌍 항목을 새롭게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인접쌍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인접쌍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타로 분류하여 대화문의 인접쌍이 소수의 항목에 편중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대화문의 인접쌍 종류는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 학자들의 인접쌍 항목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을 분석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모든 대화문이 어떤 인접쌍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그 분포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분석대상 교과서의 대화문 인접쌍을 분석하여,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될 새로운 인접쌍 항목을 제시하게 되었다.

위 표에서 특이한 점은 ‘정보제공-세분화 된 반응’의 8개의 항목(‘정보제공-호응/비호응’, ‘정보제공-확인’,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정보제공’, ‘정보제공-위로/격려’, ‘정보제공-제안’, ‘정보제공-축하/칭찬’, ‘정보제공-감사/사과’)이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인접쌍 항목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문 중 어떤 것은 대화문의 길이가 짧고 인접쌍의 기능을 결정한 구체적인 대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 그것을 접하는 학습자에 따라 그 기능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명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대화문의 선행발화를 ‘정보제공’으로 분류하였다. 그 대신 후행발화의 그 기능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반응(후행발화)’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후행 발화인 ‘반응’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기능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인접쌍 분석 대상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얼마나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제공’으로 분류된 대화문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I'm actually on the school basketball team.

B: Wow, I didn't know that.

위 대화문은 ‘정보제공-놀라움’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 이유는 선행발화가 상황에 따라 ‘자랑’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습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여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행 발화의 경우 감탄사인 ‘Wow’를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이 ‘놀라움’이라는 분명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He broke his leg.

B: That's too bad. I hope he gets better soon.

위 대화문에서 마찬가지로 선행발화는 상황에 따라 ‘걱정’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학습자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이라고 간주한 반면 후행발화는 ‘That's too bad’라는 걱정이나 위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영어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걱정/위로’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18개의 항목에 분류될 수 없는 인접쌍은 ‘기타’ 인접쌍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이 ‘명확하게 분류 가능한 10개의 항목’, ‘8개의 정보제공-세분화된 반응의 항목’과 ‘기타’, 총 19개의 항목으로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

#### 3.1.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전 학년 3종(3학년 2종)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보여지는 인접쌍을 분포도 순으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분포도가 높은 ‘질문-대답’은 인접쌍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여 살펴볼 것이며, ‘정보제공-반응’의 인접쌍 항목들의 예를 들어, 분석 대상 교과서의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고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1) 질문 - 대답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질문-대답	1251	사실 확인	678	54.20
		방법	2	0.16
		의견	131	10.47
		문의	124	9.91
		능력	23	1.84
		이유	128	10.23
		선택	27	2.16
		소망	55	4.40
		경험	42	3.36
		계획	41	3.28
		<b>총 합계</b>	<b>1251</b>	<b>100</b>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나고 이는 총 1251개의 ‘질문-대답’의 인접쌍을 기능

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였을 때, 총 10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위 표의 내용을 분포도 순으로 살펴볼 경우, 사실 확인(54.20%), 의견(10.47%), 이유(10.23%), 문의(9.91%), 소망(4.40%), 경험(3.36%), 계획(3.28%), 선택(2.16%), 능력(1.84%), 방법(0.16%)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접쌍들을 분포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실 확인

< 예1 : A 교과서 1학년 Lesson 3 >  
 A: What are you doing?  
 B: I'm reading a cooking magazine.

< 예2 : B 교과서 3학년 Lesson 2 >  
 A: Are you guys okay?  
 B: Yes, we're fine.  
 A: What happened?  
 B: I broke a dish. I'm sorry. It's all my fault.

'사실 확인'을 나타내는 '질문-대답'의 인접쌍의 하위 범주는 발화자가 상대방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청취자의 대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1>은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묻고 있는 '질문-대답'이다. <예2>에서는 발화자가 청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대답'의 인접쌍에서는 Wh-Question, Be동사와, 일반 동사의 의문

문,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나) 의견

<예1 출판사 A 3학년 Lesson 2 >

A: What did you eat yesterday, jisu?

B: I ate a hamburger.

A: How did you like it?

B: I liked it a lot. It was delicious.

<예2 출판사 B 1학년 Lesson 7 >

A: What can I do with my old jeans?

B: Why don't you make a bag or a pencil case?

A: That's a great idea, but isn't it difficult?

B: No, not at all. It's really simple.

<예1>은 어제 먹은 햄버거가 어땠는지 묻고 있고, '의견'의 기능을 하는 '질문-대답' 인접쌍에서 가장 많이 보여진 의문문과 평서문의 형식을 띄고 있다. 반면 <예2>에서는 발화자가 자신의 청바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청취자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청취자의 대답이 의문문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발화자가 의견을 묻는 말에 청취자는 가방이나 필통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다) 이유

<예1 출판사 A 2학년 Lesson 6 >

A: What's wrong, eric?

B: I lost my dog.

A: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이유’의 범주에서는 발화자가 상대방의 언행의 이유를 묻는 ‘질문-대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1>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답변을 하는 형태로 보여 ‘사실 확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대답으로부터 A의 발화의 기능이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이유’의 기능을 하는 ‘질문-대답’의 인접쌍에서는 의문사 why로 이유를 물어보는 문장이 많았고, 이밖에 What's wrong? 이나 What's the matter? 의 문장 등으로 이유를 물어보는 문장들도 있었다.

(라) 문의

<예1 출판사 B 2학년 Lesson 2 >

A: How can I get to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B: Well,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A: Thank you.

‘질문-대답’에서 ‘문의’의 기능을 사실 확인과 혼동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자는 발화자의 요구나 필요가 전제된 상황에서의 질문을 ‘문의’의 기능으로 보고 분류했다. <예1>는 how를 사용하여 장소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 how를 사용하여 문의를 하고 있다.

(마) 소망

<예1 출판사 A 1학년 Lesson 7>  
A: What do you want to do in Yosemite?  
B: I want to go fishing.

‘질문-대답’의 항목에서 소망기능을 하는 인접쌍은 발화자가 청취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묻는 기능을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1>에서 동사 want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소망을 물어보고 있다. 소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접쌍 ‘질문-대답’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동사이다. 소망과 바람을 묻는 질문에서 want, wish, hope would like와 같은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다.

(바) 경험

<예1 출판사 A 2학년 Lesson 6 >  
A: How have you been?  
B: I've been fine. thanks.  
A: How was your vacation?

B: It was great.

‘경험’의 기능을 하는 ‘질문-대답’에서는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과거의 경험을 묻는 의문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1>에서 처럼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해 어떤 장소에 가본 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동작이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 대화문들이다.

(사) 계획

<예1 출판사 A 1학년 Lesson 3 >

A: What will you do at Sonya's dacha?

B: I'll grow flowers.

‘계획’의 기능을 하는 ‘질문-대답’에서는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과 be going to가 주로 쓰였고, 시제는 현재형이지만, 명사 plan이나 동사 plan을 사용하여 계획을 나타내는 대화문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예1>에서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해 계획을 물어보고 있다.

(아) 선택

<예1 출판사 C 1학년 Lesson 7 >

A: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B: I like to climb mountains. I go with my friends every month.  
 Last month we went to Mt. Dobong.  
 A: Which mountain will you climb this month?  
 B: I will climb Mt. Seorak.  
 A: What are the good points of your hobby?  
 B: It is good for my health, and I can spend time with my friends.

‘선택’의 기능을 하는 ‘질문-대답’은 주로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의문사 형용사 which 와 동사 prefer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대화문에서 볼 수 있다. <예1>는 which를 사용해 어느 산을 등산하고 싶은지 묻고 있다.

(자) 능력

<예1 출판사 B 1학년 Lesson 2>  
 A: Can you play the piano?  
 B: No I can't.

‘능력’의 기능을 나타내는 ‘질문-대답’은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 교과서의 대화문에 구성되었다. 주로 조동사 can을 사용하고 있다. 제시된 대화문에서 능력을 묻는 질문은 조동사 can을 넣어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어떤 능력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묻고 있다.

(차) 방법

<예1 출판사 C 1학년 Lesson 5>

A: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B: I rode a bike with my dad.

A: Great. By the way, did you find a partner for the writing project about the environment?

B: No. Can you do it with me?

A: Sure. Do you have any ideas for the project?

B: Um... Why don't we use the story of Snow White?

A: How?

B: Snow White lives in a city. She becomes sick because of the dirty air.

A: That's great idea!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대답’에서는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방법을 묻는 질문이 대화문에서 등장하였다. 위의 제시된 예를 보면 두 대화자가 학교 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가 B에게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B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A는 How? 라고 말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묻고 있다.

(2) 제안 - 수락/거절/반응 없음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제안-수락/거 절/반응 없음	212	제안-수락	174	82.08
		제안-거절	31	14.62
		제안-반응 없음	7	3.30
		총 합계	212	100

두 번째로 분포 빈도가 높았던 인접쌍 항목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은 총 212개 중 ‘수락’이 (82.08%), ‘거절’이 (14.62%), ‘반응 없음’이 (3.30%)로 분류되었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가) 제안 - 수락

<p>&lt;예 1 출판사 B 3학년 Lesson 3&gt;</p> <p>A: Howard,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on your MP3 player?</p> <p>B: Oh, I'm sorry.</p> <p>A: It's alright. I just can't stand any noise when I study.</p> <p>B: Actually, it's hard for me to focus without music.</p> <p>A: Really?</p> <p>B: Yes, I listen to music when I study.</p> <p>A: That's interesting. Anyway, I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p> <p>B: No problem.</p>
---

A: Do you want to use my headphones instead?

B: That's a good idea.

‘제안-수락’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제안이나 권유를 하고 청취자가 수락 및 수용을 하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1>에서는 일반동사 의문문을 이용해 제안을 하고 있다. 공부할 때 볼륨을 줄여달라는 A의 요청에 B는 노래를 들으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자 A가 대신 자신의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들길 원하냐고 제안한다. ‘제안-수락’의 인접쌍에서는 청유문, 의문문이 사용되고 있다. 의문문에서는 why don't you~?, how/what about~? 와 같이 why와 how의 의문사가 사용되고 있고, want와 would like와 같은 동사들로 문장들이 구성되었다.

(나) 제안 - 거절

<예 1 출판사 B 1학년 Lesson 10>

A: Do you have any plans for winter vacation?

B: No, nothing special.

A: I'm going snowboarding. Do you want to come with me?

B: I'm not sure. I can ski, but I can't snowboard.

A: No problem. I'll teach you.

B: Thanks, but I'm worried. I think snowboarding is more dangerous than skiing.

A: No, it isn't. I'm sure you'll love it.

‘제안-거절’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제안이나 권유를 하고 청취자가 거절을 하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1>에서는 A가 자신과 함께 가자는 제안에 B가 I'm not sure이라고 하며 거절을 하고 있다.

(다) 제안 - 반응 없음

<예1 출판사 B 1학년 Lesson 10>  
 A: Jinny, I'm worried about Bokdol.  
 B: What's wrong with him?  
 A: I don't know. He's not eating.  
 B: Let's take him to the animal doctor.

‘제안-반응 없음’에서는 발화자가 제안이나 권유를 하지만 청취자가 수락이나 거절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화문을 말한다. <예1>에서처럼 보통 한 차례 이상의 대화가 등장 한 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문을 끝내는 형식에서 나타난다.

(3) 요청 - 수락 / 거절 / 확인

인접쌍	빈도	세부 분류	빈도	분포도(%)
요청-수락/거절 /확인	166	요청-수락	139	83.73
		요청-거절	25	15.06
		요청-확인	2	1.20
		<b>총 합계</b>	<b>166</b>	<b>100</b>

세 번째로 분포 빈도가 높았던 인접쌍은 ‘요청-수락/거절/확인’이다. 총 166개의 인접쌍 중 세부적으로는 ‘요청-수락’이 (83.73%), ‘요청-거절’이 (15.06%), ‘요청-확인’이 (1.20%)로 분류되었다.

(가) 요청 - 수락

<예1 출판사 B 1학년 Lesson 7 >  
A: Jinny, remember to put your socks in the basket.  
B: Yes, Mom.

‘요청-수락’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대화문에서 청취자에게 요청이나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락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예1>은 형식은 명령문이지만 요청의 기능을 하고 있다.

(나) 요청 - 거절

<예 1 출판사 B 1학년 Lesson 4>  
A: Don't turn right. Don't go straight. Don't touch. Don't drink the water.  
B: Stop, please.

‘요청-거절’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대화문에서 청취자에게 요청이나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거절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예1>은 명령문 형식으로 거절을 하고 있다.

(다) 요청 - 확인

<예1 출판사 A 1학년 Lesson 6>

A: Can you do me a favor?

B: What is it?

A: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B: Sure.

‘요청-확인’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발화를 하고 청취자가 수락이나 거절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요청이나 요구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예1>에서처럼 발화자가 부탁을 하는 질문에 청취자가 그 부탁을 확인하는 질문 형식으로 구성 된다

(4) 정보제공 - 호응 / 비호응

<예1 출판사 C 1학년 Lesson 5>

A: Mom! I'm home.

B: Oh, your pants are so dirty. What did you do today?

A: I went to the river with my classmates. We picked up lots of bottles and cans around the river.

B: That's nice.

본 연구자는 분석하는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종류의 선행 발화를 정보제공, 후행 발화를 반응이라 정하였다. 선행발화를 정보제공이라고 정한 이유

는 대화문의 길이가 짧고 대화 상황이 인접쌍을 확실히 규정할 만큼 분명하지 않아 학습자마다 선행발화의 기능을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행 발화의 종류를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분석 대상 교과서가 얼마나 다양한 반응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제공 - 호응 / 비호응(64개, 2.91%)’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정보를 제시하고 청취자가 호응 또는 비호응의 반응을 보이는 구조이다. <예1>에서는 A가 강 주변에서 많은 병과 캔을 주었다고 말하자 B가 'That's nice'라고 호응을 하고 있다.

(5) 주장 - 동의 / 반대

<예1 출판사 B 1학년 Lesson 8 >  
A: I think you should help her.  
B: I think so too.

‘주장-동의/반대(63개, 2.86%)’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의견이나 주장을 하면 청취자가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예1>에서는 A가 B에게 B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B는 ‘I think so too.’라고 대답하며 동의를 하고 있다.

(6) 정보제공 - 확인

<예1 출판사 C 2학년 Lesson 4 >  
A: I found this expression, "to pay through the nose." Have

you heard it before?

B: No, I haven't

A: You can say something like this: I paid through the nose when I bought the guitar.

C: What do you mean by that?

A: I paid too much money for the guitar.

‘정보제공-확인(60개, 2.73%)’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질문을 제공하면 청취자는 그 정보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정보제공 - 감탄 / 놀라움 / 기쁨

<예1 출판사A 3학년 Lesson 6>

A: It's snowing outside.

B: You're kidding. It's April now.

‘정보제공 - 감탄 / 놀라움 / 기쁨(58개, 2.64%)’은 발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청취자가 반응으로 감탄이나 놀라움의 발화를 하는 형태이다. 기능면에서 ‘호응’과 구분하기 위해 문맥상 뚜렷하게 ‘감탄/놀라움/기쁨’의 기능으로 보이는 것을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형태면에서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예1>에서는 A가 눈이 온다고 하자 B는 4월이라고 하며 장난치지 말라는 평서문의 형식으로 대답하고 그

기능은 문맥상 ‘놀라움’이라고 볼 수 있다.

(8) 허락 - 수락 / 거절

<예1 출판사 C 2학년 Lesson 11>  
A: Is it okay if I turn on the TV?  
B: I'm afraid not. I'm doing my homework.

‘허락 - 수락/거절(55개, 2.50%)’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청취자에게 허락을 요구하고 청취자는 그 허락을 수락 하거나 거절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1>에서 'Is it ok if~?' 문장으로 TV를 켜도 되는지 B에게 허락을 요구하고 있고 B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거절을 하고 있다.

(9) 정보제공 - 정보제공

<예1 출판사 B 2학년 Lesson 7>  
A: I have to go now, but I'll be back soon.  
B: Okay, but you're expected to be on time.  
A: Don't worry. I just need to bring my pink dress.  
B: What for? Sumi, you're an old lady in the play, not a princess!

‘정보제공-정보제공(51개, 2.32%)’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의견에 대한 발화를 하면 청취자가 그 상황이나 의견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선행, 후행 발화 모두 평서문의 형식을 많이 띄고 있다. <예1>에서는 A가 자신의 분홍 드레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자 B는 A가 연극에서 공주(역할)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10) 정보제공 - 위로 / 격려

<예 1 출판사 B 1학년 Lesson 6 >  
A: I got 40 on the English test.  
B: Cheer up! I can help you.

‘정보제공- 위로 / 격려(43개, 1.95%)’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취자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위로를 하는 구조이다. <예1>에서는 A가 영어시험에서 40점을 맞았다고 하자 B가 힘내라고 하고 자신이 A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위로를 하는 대화문이다.

(11) 충고 - 수용 / 비수용

<예1 출판사 B 2학년 Lesson 2>  
A : The floor is all wet.  
B: Oh, I'm sorry.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A: Make sure you close it next time  
B: Ok I will.

‘충고 - 수용 / 비수용(38개, 1.73%)’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충고를 하고 청취자가 수용 또는 비수용을 하는 구조이다. <예1>은 A가 다음에는 문을 닫으라고 충고를하자 B는 알았다고 수용을 한다.

(12) 인사 - 인사

<예 1 출판사 A 1학년 Lesson 5>  
A: Hi, Mom. I'm home.  
B: Hi, Andy. How was school?  
A: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B: OK, what's the good news?  
A: I won first place in the speaking contest.  
B: That's great! Congratulations!

‘인사-인사(35개, 1.59%)’ 발화자가 대화를 시작 할 때 인사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청취자가 인사를 하는 구조이다.

(13) 정보제공 - 제안

<예 1 출판사 B 1학년 Lesson 7>  
A: I want to buy a special gift for my dad.  
B: Why don't you make a DIY gift?  
A: Oh, that's a good idea.

‘정보제공 - 제안(23개, 1.04%)’은 발화자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청취자가 그에 대한 반응을 제안을 하는 구조 이다. 후행 발화인 ‘제안’의 형식은 주로 'why don't you~?', 'what/how about~?' 또는 평서문이다. <예1>에서 볼 수 있 듯이 A가 아빠의 선물을 사고싶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B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DIY 선물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 기타

<예 1 출판사 B 3학년 Lesson 4>

A: The monster hit by the giant cookie is finally saved!

B: Look! The monsters eaten by the giant cookie are coming out of its body.

C: Oh, wow! Look at the pink monster taking our photos. Say, "Cheese!"

다음은 19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19개, 0.86%)’ 항목의 예를 든 것이다. <예1> 세 명의 발화자가 등장하고 모두 어떤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인접쌍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장이다.

(15) 위로 / 격려-감사

<예1 출판사 A 2학년 Lesson 6 >

A: I hope you get better soon.

B: Thank you.

‘위로/격려 - 감사(16개, 0.73%)’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위로 또는 격려의 말을 하면 청취자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구조이다. <예1>에서 A가 B에게 곧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위로를 하자 B는 감사를 표현했다.

(16) 정보제공 - 감사 / 사과

<예 1 출판사 C 1학년 Lesson 4 >

A: Excuse me. Can you help me, please?

B: Sure.

A: Where is Daehan Bank?

B: It's not far from here.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It's on your left.

A: Thank you.

‘정보제공 - 감사 / 사과(16개, 0.73%)’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청취자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감사 또는 사과 표현을 하는 구조이다. <예1>에서 B가 길을 알려주자 A는 길을 알려줘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17) 정보제공 - 축하 / 칭찬

<예1 출판사 A 1학년 Lesson 5 >

A: I got an A+.

B: Congratulations!

‘정보제공 - 축하 / 칭찬(15개, 0.68%)’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청취자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칭찬 또는 축하를 하는 구조이다. <예1>에서는 A가 A+를 받았다고 하자 B는 축하를 해주고 있다.

(18) 칭찬 - 수용 / 거부 / 반응 없음

<예 1 출판사 C 1학년 Lesson 9 >

A: What are you doing, Jiho?

B: Oh, Betty. I'm making tteokbokki.

A: Really? I heard that it's a famous street food in Korea.

B: Right. Many Koreans like it. Would you like some?  
 A: Yes, please. Thanks.  
 B: It's hot, but very delicious. You're a good cook.  
 A: Thank you. I'll make gimbap next time. Why don't you join me?  
 B: Sure. It'll be fun.

‘칭찬 - 수용 / 거부 / 반응 없음(9개, 0.41%)’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칭취자를 칭찬하고 칭취자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 거부 또는 반응 없음의 구조이다. <예1>은 B가 A에게 좋은 요리사라고 하자 A는 고맙다고 수용했다.

(19) 축하 / 감사 - 수용

<예 1 출판사 A 2학년 Lesson 6>  
 A: What's up, kevin?  
 B: I finally got on the school soccer team.  
 A: Wow that's great I'm so happy to hear that.  
 B: Thanks you.

‘축하 / 감사 - 수용(7개, 0.32%)’의 인접쌍은 발화자가 축하를 하면 칭취자는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구조이다. <예1>에서는 A가 축구팀에 입단했다는 B에게 축하를 하자 B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1. 연구 결과

#### 1.1. 인접쌍 분석 결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종류와 그 분포를 알아 보기위해 중학교 1학년 3종, 2학년 3종, 3학년 2종의 대화문을 인접쌍의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19개 종류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2201개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3종 전체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빈도	분포도(%)
1	질문-대답	1251	56.84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12	9.63
3	요청-수락/거절/확인	166	7.54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64	2.91
5	주장-동의/반대	63	2.86
6	정보제공-확인	60	2.73
7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58	2.64
8	허락-수락/거절	55	2.50

9	정보제공-정보제공	51	2.32
10	정보제공-위로/격려	43	1.95
11	충고-수용/비수용	38	1.73
12	인사-인사	35	1.59
13	정보제공-제안	23	1.04
14	기타	19	0.86
15	위로/격려-감사	16	0.73
16	정보제공-감사/사과	16	0.73
17	정보제공-축하/칭찬	15	0.68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9	0.41
19	축하/감사-수용	7	0.32
	총 합계	2201	100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학년 3종, 2학년 3종, 3학년 2종 교과서에 제시된 인접쌍 2201개를 기능별로 분류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질문-대답’(56.84%),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9.63%), ‘요청-수락/거절/확인’(7.54%), ‘정보제공-호응/비호응’(2.91%), ‘주장-동의/반대’(2.86%), ‘정보제공-확인’(2.73%),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2.64%), ‘허락-수락/거절’(2.50%), ‘정보제공-정보제공’(2.32%), ‘정보제공-위로/격려’(1.95%), ‘충고-수용/비수용’(1.73%), ‘인사-인사’(1.59%), ‘정보제공-제안’(1.04%), ‘기타’(0.86%), ‘위로/격려-감사’(0.73%), ‘정보제공-감사/사과’(0.73%), ‘정보제공-축하/칭찬’(0.6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0.41%), ‘축하/감사-수용’(0.32%)과 같다.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 3종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 했을 때, 인접쌍

항목 중 ‘질문-대답’에 56.84%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74.01%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이어지는 표는 분석 대상 교과서 대화문에서 나타난 인접쌍을 출판사별과 학년별로 분류했을 때 보여지는 인접쌍 기능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4>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9 개정 A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212	68.17	195	55.71	180	55.05	587	59.41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4	7.72	43	12.29	42	12.84	109	11.03
3	요청-수락/거절/확인	26	8.36	27	7.71	34	10.40	87	8.81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5	1.61	7	2.00	8	2.45	20	2.02
5	주장-동의/반대	1	0.32	11	3.14	4	1.22	16	1.62
6	정보제공-확인	7	2.25	3	0.86	6	1.83	16	1.62
7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0	0	6	1.71	6	1.83	12	1.21
8	허락-수락/거절	5	1.61	6	1.71	9	2.75	20	2.02
9	정보제공-정보제공	4	1.29	9	2.57	10	3.06	23	2.33
10	정보제공-위로/격려	0	0.00	8	2.29	7	2.14	15	1.52
11	충고-수용/비수용	6	1.93	9	2.57	0	0	15	1.52

12	인사-인사	6	1.93	7	2.00	5	1.53	18	1.82
13	정보제공-제안	2	0.64	0	0	4	1.22	6	0.61
14	기타	3	0.96	3	0.86	1	0.31	7	0.71
15	위로/격려-감사	2	0.64	0	0.00	7	2.14	9	0.91
16	정보제공-감사/사과	3	0.96	8	2.29	2	0.61	13	1.32
17	정보제공-축하/칭찬	3	0.96	7	2.00	0	0	10	1.01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0	0	1	0.29	2	0.61	3	0.30
19	축하/감사-수용	2	0.64	0	0	0	0	2	0.20
총 합계		311	100	350	100	327	100	988	100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1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확인’,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이었으며, 그 분포가 전체 인접쌍 중 84.25%를 차지했다. 1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은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위로/격려’,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을 제외한 16가지의 항목 아래 총 311개의 인접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이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가 전체 75.71%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은 ‘정보제공-제안’, ‘위로/격려-감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가지의 항목 아래 총 350개의 인접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가 전체 78.29%를 차지했다.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은 ‘충고-수용/비수용’, ‘정보제공-축하/칭찬’, ‘축하/감사-수용’의 항목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아래 총 327개의 인접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표를 토대로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의 1~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공통적으로 약 59%가 ‘질문-대답’에 편중 되어 있었으며, 2학년과 3학년에 존재하지 않는 ‘축하/감사-수용’의 항목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접쌍 항목들은 학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인접쌍 개수를 다루고 있고 전 학년에서 16개의 인접쌍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5>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B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9 개정 B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27	59.07	119	52.42	128	54.01	374	55.08
2	제안-수락/거절/ 반응 없음	22	10.23	17	7.49	11	4.64	50	7.36
3	요청-수락/거절/ 확인	10	4.65	11	4.85	17	7.17	38	5.60
4	정보제공-호응/	2	0.93	5	2.2	4	1.69	11	1.62

비호응									
5	주장-동의/반대	6	2.79	16	7.05	12	5.06	34	5.01
6	정보제공-확인	9	4.19	6	2.64	5	2.11	20	2.95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7	3.26	7	3.08	18	7.59	32	4.71
8	허락-수락/거절	0	0	13	5.73	13	5.49	26	3.83
9	정보제공-정보 제공	0	0	4	1.76	3	1.27	7	1.03
10	정보제공-위로/ 격려	5	2.33	9	3.96	8	3.38	22	3.24
11	충고-수용/비수용	7	3.26	3	1.32	2	0.84	12	1.77
12	인사-인사	4	1.86	6	2.64	1	0.42	11	1.62
13	정보제공-제안	6	2.79	2	0.88	9	3.8	17	2.50
14	기타	4	1.86	2	0.88	2	0.84	8	1.18
15	위로/격려-감사	1	0.47	6	2.64	0	0	7	1.03
16	정보제공-감사/ 사과	0	0	0	0	0	0	0	0.
17	정보제공-축하/ 칭찬	3	1.4	0	0	2	0.84	5	0.74
18	칭찬-수용/거부/ 반응 없음	1	0.47	1	0.44	2	0.84	4	0.59
19	축하/감사-수용	1	0.47	0	0	0	0	1	0.15
총 합계		215	100	227	100	237	100	679	100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B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였으며, 그 분포가 전체 인접쌍 중 73.95%를 차지했다. 1학년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은 ‘허락-수락/거절’과 ‘정보제공-정보제공’, ‘정보제공-감사/사과’의 제외항목 16개 항목 아래 총 215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B의 2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주장-동의/반대’였으며, 그 분포가 전체 인접쌍 중 64.76%를 차지했다. 2학년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은 ‘정보제공-축하/칭찬’과 ‘축하/감사-수용’, ‘정보제공-감사/사과’의 인접쌍 항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아래 총 227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가 전체 인접쌍 중 65.82%를 차지했다. 3학년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은 ‘위로/격려-감사’와 ‘축하/감사-수용’, ‘정보제공-감사/사과’의 제외항목 16개 항목 아래 총 237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었다.

1학년과 3학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요청-수락/거절/확인’은 2학년에서 5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을 보이고 있고, 1학년과 2학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은 3학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표를 토대로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B의 1~3학년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공통적으로 약 55%가 ‘질문-대답’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전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제공-감사/사과’와 2학년과 3학년에 존재하지 않는 ‘축하/감사-수용’의 항목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접쌍 항목들은 학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인접쌍을 다루고 있고

학년 별로 각각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6>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 중학교 1,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9 개정 C					
		1학년		2학년		전체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10	51.89	180	55.9	290	54.31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3	10.85	30	9.32	53	9.93
3	요청-수락/거절/확인	16	7.55	25	7.76	41	7.68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10	4.72	23	7.14	33	6.18
5	주장-동의/반대	7	3.3	6	1.86	13	2.43
6	정보제공-확인	8	3.77	16	4.97	24	4.49
7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4	1.89	10	3.11	14	2.62
8	허락-수락/거절	8	3.77	1	0.31	9	1.69
9	정보제공-정보제공	4	1.89	17	5.28	21	3.93
10	정보제공-위로/격려	5	2.36	1	0.31	6	1.12
11	충고-수용/비수용	5	2.36	6	1.86	11	2.06
12	인사-인사	3	1.42	3	0.93	6	1.12
13	정보제공-제안	0	0	0	0	0	0
14	기타	4	1.89	0	0	4	0.75
15	위로/격려-감사	0	0	0	0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1	0.47	2	0.62	3	0
17	정보제공-축하/칭찬	0	0	0	0	0	0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2	0.94	0	0	2	0
19	축하/감사-수용	2	0.94	2	0.62	4	0.75
총 합계		212	100	322	100	534	100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가 전체 인접쌍 중 70.29%를 차지했다. 1학년 영어교과서 전체 212개 중 ‘정보제공-제안’,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축하/칭찬’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C의 2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가 전체 인접쌍 중 72.98%를 차지했다. 2학년 영어교과서 전체 322개 중 ‘정보제공-제안’,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축하/칭찬’, ‘기타’,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을 제외한 14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었다.

이 표를 토대로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교과서 대화문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공통적으로 약 53%가 ‘질문-대답’에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2학년 교과서가 1학년 교과서 보다 약 100개정도 많은 인접쌍을 다루고 있지만 1학년은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2학년은 1학년 보다 2개 더 적은 14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7>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9 개정 1학년					
		A		B		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212	68.17	127	59.07	110	51.89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4	7.72	22	10.23	23	10.85
3	요청-수락/거절/확인	26	8.36	10	4.65	16	7.55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5	1.61	2	0.93	10	4.72
5	주장-동의/반대	1	0.32	6	2.79	7	3.30
6	정보제공-확인	7	2.25	9	4.19	8	3.77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0	0	7	3.26	4	1.89
8	허락-수락/거절	5	1.61	0	0	8	3.77
9	정보제공-정보제공	4	1.29	0	0	4	1.89
10	정보제공-위로/격려	0	0.00	5	2.33	5	2.36
11	충고-수용/비수용	6	1.93	7	3.26	5	2.36
12	인사-인사	6	1.93	4	1.86	3	1.42
13	정보제공-제안	2	0.64	6	2.79	0	0
14	기타	3	0.96	4	1.86	4	1.89
15	위로/격려-감사	2	0.64	1	0.47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3	0.96	0	0	1	0.47
17	정보제공-축하/칭찬	3	0.96	3	1.40	0	0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0	0	1	0.47	2	0.94
19	축하/감사-수용	2	0.64	1	0.47	2	0.94
총 합계		311	100	215	100	212	100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확인’,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84.25%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위로/격려’,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11개의 인접쌍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3.95%를 차지했다. 출판사 B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허락-수락/거절’, ‘정보제공-정보제공’, ‘정보제공-감사/사과’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15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0.29%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정보제공-제안’,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축하/칭찬’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12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 표를 토대로 2009 개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 했을 때 3종 모두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었지만 출판사 A가 가장 많은 인접쌍 개수를 다루고 있었다. 약 59%가 ‘질문-대답’ 항목에 편중되어 있었고, 제외된 인접쌍 항목은 출판사 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9개정 1학년 영어교과서 3종은 모두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

루고 있지만 인접쌍 개수로 보았을 때 출판사 A가 출판사 B와 C보다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었다

<표8>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9 개정 2학년					
		A		B		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95	55.71	119	52.42	180	55.90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43	12.29	17	7.49	30	9.32
3	요청-수락/거절/확인	27	7.71	11	4.85	25	7.76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7	2.00	5	2.20	23	7.14
5	주장-동의/반대	11	3.14	16	7.05	6	1.86
6	정보제공-확인	3	0.86	6	2.64	16	4.97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6	1.71	7	3.08	10	3.11
8	허락-수락/거절	6	1.71	13	5.73	1	0.31
9	정보제공-정보제공	9	2.57	4	1.76	17	5.28
10	정보제공-위로/격려	8	2.29	9	3.96	1	0.31
11	충고-수용/비수용	9	2.57	3	1.32	6	1.86
12	인사-인사	7	2.00	6	2.64	3	0.93
13	정보제공-제안	0	0	2	0.88	0	0.00
14	기타	3	0.86	2	0.88	0	0.00
15	위로/격려-감사	0	0.00	6	2.64	0	0.0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8	2.29	0	0	2	0.62
17	정보제공-축하/칭찬	7	2.00	0	0	0	0.00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1	0.29	1	0.44	0	0.00
19	축하/감사-수용	0	0	0	0	2	0.62
총 합계		350	100	227	100	322	100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2학년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5.71%를 차지했다. 출판사 A에서는 ‘정보제공-제안’, ‘위로/격려-감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50개의 인접쌍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2학년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주장-동의/반대’였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6.96%를 차지했다. 출판사 B에서는 ‘정보제공-감사/사과’, ‘정보제공-축하/칭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27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학년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2.98%를 차지했다. 출판사 C에서는 ‘정보제공-제안’, ‘기타’,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축하/칭찬’,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을 제외한 14개의 항목 아래 총 322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A와 C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요청-수락/거절/확인’은 출판사 B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위 표를 토대로 2009 개정을 반영한 출판사 3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을 19개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 했을 때 A와 B 출판사는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 반면 C출판사는 2개 더 적은 14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제외된 인접쌍 항목은 A와 C 출판사가 공통적으로 ‘정보제공-제안’과 ‘위로/격려-감사’의 항목을 다루고 않고 있고, A와 B출판사가 ‘축하/감사-수용’을, B와 C출판사가 ‘정보제공-축하/감사’를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외 제외된 인접쌍은 출판사

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2학년 교과서 또한 약 54%가 ‘질문-대답’ 항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3종을 비교했을 때 16개의 인접쌍 항목과 가장 많은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출판사 A가 의사소통기능 신장에 가장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표9>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9 개정 3학년			
		A		B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80	55.05	128	54.01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42	12.84	11	4.64
3	요청-수락/거절/확인	34	10.40	17	7.17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8	2.45	4	1.69
5	주장-동의/반대	4	1.22	12	5.06
6	정보제공-확인	6	1.83	5	2.11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6	1.83	18	7.59
8	허락-수락/거절	9	2.75	13	5.49
9	정보제공-정보제공	10	3.06	3	1.27
10	정보제공-위로/격려	7	2.14	8	3.38
11	충고-수용/비수용	0	0	2	0.84
12	인사-인사	5	1.53	1	0.42
13	정보제공-제안	4	1.22	9	3.80
14	기타	1	0.31	2	0.84
15	위로/격려-감사	7	2.14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2	0.61	0	0.00
17	정보제공-축하/칭찬	0	0	2	0.84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2	0.61	2	0.84
19	축하/감사-수용	0	0	0	0
총	합계	327	100	237	100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총 인접쌍 중 78.29%를 차지했다. 출판사 A에서는 ‘충고-수용/비수용’, ‘정보제공-축하/칭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27개의 인접쌍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요청-수락/거절/확인’의 항목이었고, 그 분포는 총 인접쌍 중 68.77%를 차지했다. 출판사 B에서는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감사/사과’,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237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9개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 했을 때, A와 B 출판사 모두 16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외된 인접쌍 항목은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축하/감사-수용’항목을 다루지 않고 있고 이외 제외된 인접쌍 항목은 출판사 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3학년 교과서 또한 약 54%가 ‘질문-대답’ 항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9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는 인접쌍 개수가 더 많은 출판사 A가 출판사 B 보다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표10>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대화문의 출판사별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출판사 A		출판사 B		출판사 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587	59.41	374	55.08	290	54.31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109	11.03	50	7.36	53	9.93
3	요청-수락/거절/확인	87	8.81	38	5.60	41	7.68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20	2.02	11	1.62	33	6.18
5	주장-동의/반대	16	1.62	34	5.01	13	2.43
6	정보제공-확인	16	1.62	20	2.95	24	4.49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12	1.21	32	4.71	14	2.62
8	허락-수락/거절	20	2.02	26	3.83	9	1.69
9	정보제공-정보제공	23	2.33	7	1.03	21	3.93
10	정보제공-위로/격려	15	1.52	22	3.24	6	1.12
11	충고-수용/비수용	15	1.52	12	1.77	11	2.06
12	인사-인사	18	1.82	11	1.62	6	1.12
13	정보제공-제안	6	0.61	17	2.50	0	0
14	기타	7	0.71	8	1.18	4	0.75
15	위로/격려-감사	9	0.91	7	1.03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13	1.32	0	0.00	3	0.56
17	정보제공-축하/칭찬	10	1.01	5	0.74	0	0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3	0.30	4	0.59	2	0.37
19	축하/감사-수용	2	0.20	1	0.15	4	0.75
	총 합계	988	100	679	100	534	100

위 표를 살펴보면 출판사 A, B, C의 인접쌍 2201개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3개 항목은 ‘질문-대답’(출판사 A (59.41%), 출판사 B (55.08%), 출판사 C (54.31%),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출판사 A

(11.03%), 출판사 B (7.36%), 출판사 C (9.93%)), ‘요청-수락/거절/확인’ (출판사 A (8.81%), 출판사 B (5.60%), 출판사 C (7.68%))이었다. 상 위 3개 인접쌍 항목이 전체 인접쌍 중, 각각 출판사 A는 79.25%, 출판사 B는 68.04%, 출판사 C는 71.92%를 차지했고, 평균적으로 위 세 개 출판사의 2009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73%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의 항목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1>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영어교과서 2종 전체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빈도	분포도(%)
1	질문-대답	940	48.65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42	12.53
3	요청-수락/거절/확인	114	5.90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91	4.71
5	주장-동의/반대	71	3.67
6	정보제공-확인	101	5.23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54	2.80
8	허락-수락/거절	22	1.29
9	정보제공-정보제공	48	2.48
10	정보제공-위로/격려	50	2.59
11	충고-수용/비수용	33	1.71
12	인사-인사	35	1.81
13	정보제공-제안	17	0.88
14	기타	13	0.67
15	위로/격려-감사	16	0.83
16	정보제공-감사/사과	25	1.29
17	정보제공-축하/칭찬	15	0.78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32	1.66
19	축하/감사-수용	13	0.67
	총 합계	1932	100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학년 2종, 2학년 2종, 3학년 2종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인접쌍 1932개를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질문-대답’(48.65%),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12.53%), ‘요청-수락/거절/확인’(5.90%), ‘정보제공-확인’(5.23%) ‘정보제공-호응/비호응’(4.71%), ‘주장-동의/반대’(3.67%),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2.80%), ‘정보제공-위로/격려’(2.59%), ‘정보제공-정보제공’(2.48%), ‘인사-인사’(1.81%), ‘충고-수용/비수용’(1.71%),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1.66%)’, ‘정보제공-감사/사과 (1.29%)’, ‘정보제공-축하/칭찬’(0.78%), ‘축하/감사-수용’(0.67%), ‘기타’(0.67%)와 같다. 전체 인접쌍 중 48.65%가 ‘질문-대답’ 항목에 집중되었고, 67.08%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2>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의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A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34	55.6	164	51.57	149	49.34	447	51.92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5	10.37	37	11.64	29	9.6	91	10.57
3	요청-수락/거절/확인	13	5.39	34	10.69	10	3.31	57	6.62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8	3.32	7	2.2	12	3.97	27	3.14

5	주장-동의/반대	8	3.32	9	2.83	9	2.98	26	3.02
6	정보제공-확인	13	5.39	10	3.14	17	5.63	40	4.65
7	정보제공-감탄 / 놀라움/기쁨	7	2.9	3	0.94	16	5.3	26	3.02
8	허락-수락/거절	2	0.83	8	2.52	6	1.99	16	1.86
9	정보제공-정보 제공	4	1.66	5	1.57	5	1.66	14	1.63
10	정보제공-위로 /격려	8	3.32	10	3.14	9	2.98	27	3.14
11	충고-수용/비 수용	3	1.24	7	2.2	6	1.99	16	1.86
12	인사-인사	5	2.07	3	0.94	3	0.99	11	1.28
13	정보제공-제안	3	1.24	3	0.94	4	1.32	10	1.16
14	기타	1	0.41	1	0.31	4	1.32	6	0.70
15	위로/격려-감사	0	0	9	2.83	0	0	9	1.05
16	정보제공-감사 /사과	0	0	2	0.63	12	3.97	14	1.63
17	정보제공-축하 /칭찬	7	2.9	1	0.31	4	1.32	12	1.39
18	칭찬-수용/거 부/반응 없음	0	0	2	0.63	2	0.66	4	0.46
19	축하/감사-수용	0	0	3	0.94	5	1.66	8	0.93
총 합계		241	100	318	100	302	100	861	100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의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 ‘정보제공-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6.75%를 차지했다. 1학년에서는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감사/사과’,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5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241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A의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3.9%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학년에서는 19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18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A의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57%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학년은 ‘위로/격려-감사’를 제외한 18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02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학년과 2학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요청-수락/거절/확인’은 3학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인 항목이었다.

이 표를 토대로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 중학교 1~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공통적으로 약 52%가 ‘질문-대답’에 편중 되어 있었으며, 1,3학년에 존재하지 않는 ‘위로/격려-감사’의 항목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접쌍 항목들은 학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인접쌍을

다루고 있고 인접쌍 항목도 19개로 2학년이 가장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3>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의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C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09	41.6	152	45.37	232	48.95	493	46.03
2	제안-수락/거절/ 반응 없음	42	16.03	45	13.43	64	13.5	151	14.10
3	요청-수락/거절/ 확인	17	6.49	11	3.28	29	6.12	57	5.32
4	정보제공-호응/ 비호응	13	4.96	17	5.07	34	7.17	64	5.98
5	주장-동의/반대	9	3.44	17	5.07	19	4.01	45	4.20
6	정보제공-확인	15	5.73	17	5.07	29	6.12	61	5.70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11	4.2	8	2.39	9	1.9	28	2.61
8	허락-수락/거절	3	1.15	1	0.3	2	0.42	6	0.56
9	정보제공-정보제공	7	2.67	12	3.58	15	3.16	34	3.17
10	정보제공-위로/격려	7	2.67	12	3.58	4	0.84	23	2.15
11	충고-수용/비수용	4	1.53	8	2.39	5	1.05	17	1.59
12	인사-인사	18	6.87	2	0.6	4	0.84	24	2.24
13	정보제공-제안	2	0.76	3	0.9	2	0.42	7	0.65

14	기타	0	0	3	0.9	4	0.84	7	0.65
15	위로/격려-감사	0	0	2	0.6	5	1.05	7	0.65
16	정보제공-감사/사과	2	0.76	5	1.49	4	0.84	11	1.03
17	정보제공-축하/칭찬	2	0.76	0	0	1	0.21	3	0.28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1	0.38	19	5.67	8	1.69	28	2.61
19	축하/감사-수용	0	0	1	0.3	4	0.84	5	0.47
총 합계		262	100	335	100	474	100	1071	100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의 대화문 인접쌍을 19개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인사-인사’ 였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5%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학년에서는 ‘기타’, ‘위로/격려-감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262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C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47%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학년에서는 ‘정보제공-축하/칭찬’을 제외한 18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35개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C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호응/비호응’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9.62%를 차지했다. 3학년은 19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474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이 표를 토대로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C의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공통적으로 약 45%가 ‘질문-대답’에 편중 되어 있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인접쌍 항목들은 학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인접쌍을 다루고 있고 인접쌍 항목도 19개로 3학년이 가장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4>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1학년			
		A		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34	55.60	109	41.60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5	10.37	42	16.03
3	요청-수락/거절/확인	13	5.39	17	6.49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8	3.32	13	4.96
5	주장-동의/반대	8	3.32	9	3.44
6	정보제공-확인	13	5.39	15	5.73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7	2.90	11	4.20
8	허락-수락/거절	2	0.83	3	1.15
9	정보제공-정보제공	4	1.66	7	2.67

10	정보제공-위로/격려	8	3.32	7	2.67
11	충고-수용/비수용	3	1.24	4	1.53
12	인사-인사	5	2.07	18	6.87
13	정보제공-제안	3	1.24	2	0.76
14	기타	1	0.41	0	0
15	위로/격려-감사	0	0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0	0	2	0.76
17	정보제공-축하/칭찬	7	2.90	2	0.76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0	0	1	0.38
19	축하/감사-수용	0	0	0	0
총 합계		241	100	262	100

2007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 ‘정보제공-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6.75%를 차지했다. 출판사 A에서는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감사’,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5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241개의 인접쌍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인사-인사’였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5%를 차지했다. 출판사 C에서는 ‘기타’, ‘위로/격려-감

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62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A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였던 ‘요청-수락/거절/확인’과 ‘정보제공-확인’은 출판사 B에서는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07 개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 했을 때 약 49%가 ‘질문-대답’항목에 편중되어 있어다는 것과 출판사 A보다 C가 더 많은 인접쌍 개수와 인접쌍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와 C에서 공통적으로 ‘축하/감사-수용’과 ‘위로/격려-감사’ 항목을 다루지 않고 있었으며, 이외 제외된 인접쌍은 출판사 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7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출판사 C가 출판사 A보다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표15>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2학년			
		A		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64	51.57	152	45.37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37	11.64	45	13.43
3	요청-수락/거절/확인	34	10.69	11	3.28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7	2.2	17	5.07
5	주장-동의/반대	9	2.83	17	5.07
6	정보제공-확인	10	3.14	17	5.07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3	0.94	8	2.39
8	허락-수락/거절	8	2.52	1	0.3
9	정보제공-정보제공	5	1.57	12	3.58
10	정보제공-위로/격려	10	3.14	12	3.58
11	충고-수용/비수용	7	2.2	8	2.39
12	인사-인사	3	0.94	2	0.6
13	정보제공-제안	3	0.94	3	0.9
14	기타	1	0.31	3	0.9
15	위로/격려-감사	9	2.83	2	0.6
16	정보제공-감사/사과	2	0.63	5	1.49
17	정보제공-축하/칭찬	1	0.31	0	0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2	0.63	19	5.67
19	축하/감사-수용	3	0.94	1	0.3
	총 합계	318	100	335	100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3.9%를 차지했다. 출판사 A에서는 19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18개의 인접쌍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47%를 차지했다. 출판사 C에서는 ‘정보 제공-축하/칭찬’의 항목을 제외한 18개의 항목 아래 총 335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7개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기능별로 분류 했을 때 출판사 A보다 C가 더 많은 인접쌍 개수를 다루고 있지만 인접쌍 항목은 C보다 A출판사의 교과서가 19개로 더 많았고, 2학년 영어 교과서 2종의 대화문 인접쌍이 약 49%가 ‘질문-대답’ 항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7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는 인접쌍 항목의 개수가 더 많은 출판사 A가 출판사 C보다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표16>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2종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3 학년			
		A		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49	49.34	232	48.95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9	9.6	64	13.5
3	요청-수락/거절/확인	10	3.31	29	6.12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12	3.97	34	7.17
5	주장-동의/반대	9	2.98	19	4.01
6	정보제공-확인	17	5.63	29	6.12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16	5.3	9	1.9
8	허락-수락/거절	6	1.99	2	0.42
9	정보제공-정보제공	5	1.66	15	3.16
10	정보제공-위로/격려	9	2.98	4	0.84
11	충고-수용/비수용	6	1.99	5	1.05
12	인사-인사	3	0.99	4	0.84
13	정보제공-제안	4	1.32	2	0.42
14	기타	4	1.32	4	0.84
15	위로/격려-감사	0	0	5	1.05
16	정보제공-감사/사과	12	3.97	4	0.84
17	정보제공-축하/칭찬	4	1.32	1	0.21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2	0.66	8	1.69
19	축하/감사-수용	5	1.66	4	0.84
총 합계		302	100	474	100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출판사 A, C의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대화문의 인접쌍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57%를 차지했다. 출판사 A에서는 ‘위로/격려-감사’를 제외한 18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302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 C의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호응/비호응’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9.62%를 차지했다. 출판사 C에서는 474개로 A 출판사보다 더 많은 인접쌍을 다루고 있으며, 19개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었다.

이 표를 토대로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출판사 A와 C의 교과서 대화문을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공통적으로 약 49%가 ‘질문-대답’에 편중 되어 있었다. 출판사 C의 3학년 영어 교과서가 출판사A 의 3학년 영어 교과서 보다 더 많은 인접쌍과 인접쌍 항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7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는 인접쌍의 수와 인접쌍 항목의 개수가 더 많은 출판사 C가 출판사 A보다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표17> 출판사 A, B, C의 2007과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전체 비교

	인접쌍	2007개정				2009개정			
		A 1~3학년		C 1~3학년		A 1~3학년		B 1~3학년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447	51.92	493	46.03	587	59.41	374	55.08
2	제안-수락/거절/ 반응 없음	91	10.57	151	14.10	109	11.03	50	7.36
3	요청-수락/거절/ 확인	57	6.62	57	5.32	87	8.81	38	5.6
4	정보제공-호응/ 비호응	27	3.14	64	5.98	20	2.02	11	1.62
5	주장-동의/반대	26	3.02	45	4.20	16	1.62	34	5.01
6	정보제공-확인	40	4.65	61	5.70	16	1.62	20	2.95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26	3.02	28	2.61	12	1.21	32	4.71
8	허락-수락/거절	16	1.86	6	0.56	20	2.02	26	3.83
9	정보제공-정보 제공	14	1.63	34	3.17	23	2.33	7	1.03
10	정보제공-위로/ 격려	27	3.14	23	2.15	15	1.52	22	3.24
11	충고-수용/비수용	16	1.86	17	1.59	15	1.52	12	1.77
12	인사-인사	11	1.28	24	2.24	18	1.82	11	1.62
13	정보제공-제안	10	1.16	7	0.65	6	0.61	17	2.5
14	기타	6	0.70	7	0.65	7	0.71	8	1.18
15	위로/격려-감사	9	1.05	7	0.65	9	0.91	7	1.03
16	정보제공-감사/ 사과	14	1.63	11	1.03	13	1.32	0	0
17	정보제공-축하/ 칭찬	12	1.39	3	0.28	10	1.01	5	0.74
18	칭찬-수용/거부/ 반응 없음	4	0.46	28	2.61	3	0.30	4	0.59
19	축하/감사-수용	8	0.93	5	0.47	2	0.20	1	0.15
	총 합계	861	100	1071	100	988	100	679	100

위 표는 2007개정 출판사 A와 C, 2009개정 출판사 A와 B의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항목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나열한 것이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9.11%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19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861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9.25%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19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988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호응/비호응’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5.45%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19개의 인접쌍 항목 아래 총 1071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8.04%를 차지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정보제공-감사/사과’를 제외한 18개 항목아래 총 679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개정 출판사 A와 2009개정 출판사 A와 B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요청-수락/거절/확인’은 2007개정 출판사 C에서 다섯 번째로 높

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위 표를 토대로 인접쌍 개수가 가장 많고 인접쌍 항목이 19개이며 상위 세 개의 인접쌍 항목에 대한 분포가 65.45%로 가장 적은 2007개정 출판사 C의 1~3학년 영어교과서 가장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표18>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출판사별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1학년				2009 개정 1학년					
		출판사A		출판사 C		출판사A		출판사B		출판사C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34	55.60	109	41.60	212	68.17	127	59.07	110	51.89
2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25	10.37	42	16.03	24	7.72	22	10.23	23	10.85
3	요청-수락/거절/확인	13	5.39	17	6.49	26	8.36	10	4.65	16	7.55
4	정보제공-호응/비호응	8	3.32	13	4.96	5	1.61	2	0.93	10	4.72
5	주장-동의/반대	8	3.32	9	3.44	1	0.32	6	2.79	7	3.30
6	정보제공-확인	13	5.39	15	5.73	7	2.25	9	4.19	8	3.77
7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7	2.90	11	4.20	0	0	7	3.26	4	1.89
8	허락-수락/거절	2	0.83	3	1.15	5	1.61	0	0	8	3.77
9	정보제공-정보제공	4	1.66	7	2.67	4	1.29	0	0	4	1.89
10	정보제공-위로/격려	8	3.32	7	2.67	0	0.00	5	2.33	5	2.36

11	충고-수용/ 비수용	3	1.24	4	1.53	6	1.93	7	3.26	5	2.36
12	인사-인사	5	2.07	18	6.87	6	1.93	4	1.86	3	1.42
13	정보제공- 제안	3	1.24	2	0.76	2	0.64	6	2.79	0	0.00
14	기타	1	0.41	0	0.00	3	0.96	4	1.86	4	1.89
15	위로/격려 -감사	0	0.00	0	0.00	2	0.64	1	0.47	0	0.00
16	정보제공- 감사/사과	0	0.00	2	0.76	3	0.96	0	0	1	0.47
17	정보제공- 축하/칭찬	7	2.90	2	0.76	3	0.96	3	1.40	0	0.00
18	칭찬-수용 /거부/반응 없음	0	0.00	1	0.38	0	0	1	0.47	2	0.94
19	축하/감사 -수용	0	0.00	0	0.00	2	0.64	1	0.47	2	0.94
총 합계		241	100	262	100	311	100	215	100	212	100

위 표는 2007개정 출판사 A와 C, 2009개정 출판사 A, B, C의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항목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나열한 것이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1.36%를 차지했다. 2007개정에서는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감사/사과’,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5개의 항목 아래 총 241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요청-수락/거절/확인’, ‘제안-수

락/거절/반응 없음'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84.25%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위로/격려'를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311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인사-인사'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5%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기타', '위로/격려-감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62개의 인접쌍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출판사 C의 2009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0.29%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2009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제안', '정보제공-축하/칭찬'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12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73.95%를 차지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허락-수락/거절', '정보제공-정보제공', '정보제공-감사/사과'을 제외한 16개 항목 아래 총 215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표를 토대로 상위 세 개의 인접쌍 항목에 대한 분포가 84.25%로 가장 높지만, 인접쌍의 개수가 가장 많고 인접쌍 항목이 16개인 2009개정 출판사 A의 1학년 영어교과서가 가장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표19>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출판사별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2학년				2009 개정 2학년					
		출판사A		출판사 C		출판사A		출판사B		출판사C	
		빈 도	분포도 (%)	빈 도	분포도 (%)	빈 도	분포도 (%)	빈 도	분포도 (%)	빈 도	분포도 (%)
1	질문-대 답	164	51.57	152	45.37	195	55.71	119	52.42	180	55.9
2	제안-수 락/거절/ 반응 없음	37	11.64	45	13.43	43	12.29	17	7.49	30	9.32
3	요청-수 락/거절/ 확인	34	10.69	11	3.28	27	7.71	11	4.85	25	7.76
4	정보제공 -호응/비 호응	7	2.2	17	5.07	7	2	5	2.2	23	7.14
5	주장-동 의/반대	9	2.83	17	5.07	11	3.14	16	7.05	6	1.86
6	정보제공 -확인	10	3.14	17	5.07	3	0.86	6	2.64	16	4.97
7	정보제공 -감탄/ 놀라움/ 기쁨	3	0.94	8	2.39	6	1.71	7	3.08	10	3.11
8	허락-수 락/거절	8	2.52	1	0.3	6	1.71	13	5.73	1	0.31
9	정보제공 -정보제 공	5	1.57	12	3.58	9	2.57	4	1.76	17	5.28
10	정보제공 -위로/격 려	10	3.14	12	3.58	8	2.29	9	3.96	1	0.31
11	충고-수 용/비수 용	7	2.2	8	2.39	9	2.57	3	1.32	6	1.86
12	인사-인 사	3	0.94	2	0.6	7	2	6	2.64	3	0.93
13	정보제공 -제안	3	0.94	3	0.9	0	0	2	0.88	0	0

14	기타	1	0.31	3	0.9	3	0.86	2	0.88	0	0
15	위로/격려-감사	9	2.83	2	0.6	0	0	6	2.64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2	0.63	5	1.49	8	2.29	0	0	2	0.62
17	정보제공-축하/칭찬	1	0.31	0	0	7	2	0	0	0	0
18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	2	0.63	19	5.67	1	0.29	1	0.44	0	0
19	축하/감사-수용	3	0.94	1	0.3	0	0	0	0	2	0.62
총 합계		318	100	335	100	350	100	227	100	322	100

위 표는 2007개정 출판사 A와 C, 2009개정 출판사 A, B, C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항목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나열한 것이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3.9%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19개 항목 아래 총 318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5.71%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정보제공-제안’, ‘위로/격려-감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350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47%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정보제공-축하/칭찬’을 제외한 18개의 항목 아래 총 335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2.98%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정보제공-제안’, ‘기타’,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축하/칭찬’, ‘칭찬-수용/거부/반응 없음’을 제외한 14개의 항목 아래 총 322개의 인접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주장-동의/반대’이었고 그 분포는 66.96%를 차지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서 ‘정보제공-감사/사과’, ‘정보제공-축하/칭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27개의 인접쌍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 표를 토대로 2007개정 출판사 A의 2학년 영어교과서가 상위 세 개의 인접쌍 항목에 대한 분포가 73.9%로 다섯 개 출판사 중 세 번째로 높고, 인접쌍의 개수는 네 번째로 많지만 인접쌍 항목이 19개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가장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었다.

<표20> 2007과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 분포 출판사별 비교

	인접쌍	2007 개정 3학년				2009 개정 3학년			
		출판사A		출판사 C		출판사A		출판사B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빈도	분포도 (%)
1	질문-대답	149	49.34	232	48.95	180	55.05	128	54.01
2	제안-수락/거절/ 반응 없음	29	9.6	64	13.5	42	12.84	11	4.64
3	요청-수락/거절/확인	10	3.31	29	6.12	34	10.4	17	7.17
4	정보제공-호응/비 호응	12	3.97	34	7.17	8	2.45	4	1.69
5	주장-동의/반대	9	2.98	19	4.01	4	1.22	12	5.06
6	정보제공-확인	17	5.63	29	6.12	6	1.83	5	2.11
7	정보제공-감탄/ 놀라움/기쁨	16	5.3	9	1.9	6	1.83	18	7.59
8	허락-수락/거절	6	1.99	2	0.42	9	2.75	13	5.49
9	정보제공-정보제공	5	1.66	15	3.16	10	3.06	3	1.27
10	정보제공-위로/격려	9	2.98	4	0.84	7	2.14	8	3.38
11	충고-수용/비수용	6	1.99	5	1.05	0	0	2	0.84
12	인사-인사	3	0.99	4	0.84	5	1.53	1	0.42
13	정보제공-제안	4	1.32	2	0.42	4	1.22	9	3.8

14	기타	4	1.32	4	0.84	1	0.31	2	0.84
15	위로/격려-감사	0	0	5	1.05	7	2.14	0	0
16	정보제공-감사/사과	12	3.97	4	0.84	2	0.61	0	0
17	정보제공-축하/칭찬	4	1.32	1	0.21	0	0	2	0.84
18	칭찬-수용/거부/ 반응 없음	2	0.66	8	1.69	2	0.61	2	0.84
19	축하/감사-수용	5	1.66	4	0.84	0	0	0	0
총 합계		302	100	474	100	327	100	237	100

위 표는 2007개정 출판사 A와 C, 2009개정 출판사 A와 B의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을 19개의 인접쌍 항목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나열한 것이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4.57%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7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위로/격려-감사’를 제외한 18개 항목 아래 총 302개의 인접쌍 항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78.29%를 차지했다. 출판사 A의 2009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충고-수용/비수용’, ‘정보제공-축하/칭찬’,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327

개의 인접쌍 항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정보제공-호응/비호응’이었고 그 분포는 전체 인접쌍 중 69.62%를 차지했다. 출판사 C의 2007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19개의 항목 아래 총 474개의 인접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인접쌍 항목은 순서대로 ‘질문-대답’,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요청-수락/거절/확인’이었고 그 분포는 68.77%를 차지했다. 출판사 B의 2009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서 ‘위로/격려-감사’, ‘정보제공-감사/사과’, ‘축하/감사-수용’을 제외한 16개의 항목 아래 총 237개의 인접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 표를 토대로 상위 세 개의 인접쌍 항목에 대한 분포가 69.62%로 네 개 출판사 중 두 번째로 높지만 인접쌍의 개수가 가장 많고 인접쌍 항목이 19개로 가장 많은 2007개정 출판사 C의 3학년 영어교과서가 가장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었다.

## V. 결 론

### 1. 결론

우리나라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실 수업 환경은 영어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점차 중요한 영어학습의 목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교실환경에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 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중점 목표로 대두되면서 2007년 개정,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교과서에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요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중학교 전 학년 영어교과서 3종(3학년 2종)을 선정하여 교과서 내 대화문을 대화문 분석적 관점 중 인접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교과서가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 종류를 대화문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문이 얼마나 다양한 인접쌍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분포를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19개의 인접쌍 항목을 제시하고, 2007과 2009개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학년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첫 째, 분석 대상 2009개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 1003개 중 2201개 인접쌍을 추출하였다. 분류된 인접쌍 항목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9개의 인접쌍 항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대화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은 ‘질문-대답’이 1251개,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이 212개, ‘요청-수락/거절/확인’이 166개였으며, 전체 인접쌍 중 약 74%를 차지했다.

위 결과를 통해 논문의 연구자는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전 학년 영어 교과서 3종(3학년 2종)의 대화문이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의 인접쌍 항목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 째, 2007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전 학년 영어교과서 2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2009개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인접쌍 중 약 67%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확인’, ‘요청-수락/거절/확인’에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7개정에서 2009개정보다 그 분포가 약 7%정도 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이밖에 ‘정보제공-감탄/놀라움/기쁨’, ‘정보제공-정보제공’, ‘충고-수용/비수용’, ‘위로/격려-감사’는 2009개정 교과서와 동일한 분포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7과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의 인접쌍은 그 다양성과 분포도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접쌍 항목이 골고루 분포했는지 여부에 따라 2007개정이 2009개정 보다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더 기여하도록 제작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영어교과서 3종(3학년 2종)의 대화문에서 19가지의 인접쌍 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분포가 ‘질문-대답’, ‘제안-수락/거절/반응 없음’, ‘요청-수락/거절/확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9개정이 2007개정 보다 그 분포가 약 7%정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쌍의 다양함과 그 분포도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 했지만, 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한적인 교실환경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의 이뤄지는 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인접쌍 항목을 골고루 분포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교과서

김성곤, 이보현, 조은정, 박선령, 원혜진, 조향연, 이희자, 김미미, 김수아, Johanna L. Haas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 두산 동아

김성곤, 이보현, 조은정, 박선령, 원혜진, 조향연, 이희자, 김미미, 김수아, Johanna L. Haas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 두산 동아

김성곤, 이보현, 조은정, 박선령, 원혜진, 조향연, 이희자, 김미미, 김수아, Johanna L. Haas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 두산 동아

배두본, 이상민, 전병문, 조일제, 이민호, 이한규, 윤홍섭, 김현진, 한맹구, 정상열, 오석진, 이성룡, 김태동, 윤영애, 안성은, 최태원, 홍윤빈, 권현숙, 이주현, 이효은, 박일이, 이은정, Daniel A Craig, Andrew Robert Yaros.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 (주)미래엔

배두본, 이상민, 전병문, 조일제, 이민호, 이한규, 윤홍섭, 김현진, 한맹구, 정상열, 오석진, 이성룡, 김태동, 윤영애, 안성은, 최태원, 홍윤빈, 권현숙, 이주현, 이효은, 박일이, 이은정, Daniel A Craig, Andrew Robert Yaros.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 (주)미래엔

배두본, 이상민, 전병문, 조일제, 이민호, 이한규, 윤홍섭, 김현진, 한  
맹구, 정상열, 오석진, 이성룡, 김태동, 윤영애, 안성은, 최태  
원, 홍윤빈, 권현숙, 이주현, 이효은, 박일이, 이은정, Daniel  
A Craig, Andrew Robert Yaros.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 (주)미래엔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유미, 안  
혜정, 이소현, Jay Robert Fraser.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 천재교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유미, 안  
혜정, 이소현, Jay Robert Fraser.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 천재교육

#### 학위 논문 및 학술 자료

강지원. 2010.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인접쌍을 중심으  
로). 석사 학위 논문.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미연. 2005.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요청 표현을 중심  
으로. 석사 학위 논문.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세희란. 2018. 영어교과서 소재를 통한 의사소통 기능 연구.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 학위 논문: 서울

김용용. 2003. 중1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박용예. 2005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양혜순 · 이성범 · 이창봉(편).

- 영어학의 최근 논점: 의미론, 응용언어학 (pp. 321-364). 서울: 한국문화사
- 박정화. 2007.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 개선 연구-요청과 거절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배두분. 1999. 영어 교재론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 이소영.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관한 문헌 연구. (pp. 77-95). English linguistic science 제 14권 2호
- 이현정. 2009.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인접쌍(adjacency pairs)에 나타난 응답 분석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미혜. 2006. 중학교 영어교과서 말하기 대화문 상황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서울
- McLaughlin, M. L. 1984. Conversation: How Talk Is Organized. Beverly Hills, CA: Sage.
- Raymond W. Gibbs, Jr. Your Wish Is My Command: Convention and Context in Interpreting Indirect Reques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431-444(1981)
- Raymond W. Gibbs, Jr. What Makes Some Indirect Speech Acts Convention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 181-196(1986)

# ABSTRACT

## An Analysis of Dialogues in Middle School Textbooks

Kim, Hyeji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ialogues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of 2009. It mainly focuses on adjacency pairs so as to examine the diversity of them in the textbooks;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the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of 2007 in order to compare to that of 2009 revision.

It suggested 19 categories as fellows. 'question-answer', 'greeting-greeting' , 'opinion-agree/disagree' , 'request-accept/reject/confirm' , 'complement-accept/refuse/no-response', 'suggestion-accept/reject/no-response', 'permission-accept/reject', 'congratulation/appreciation-accept', 'advice-accept/no-response',

'consolation/appreciation-appreciation'.

Lastly, the eight 'information offer-response' categories are suggested for the reason as follows. In examination of textbooks, precedent utterances of adjacency pairs are thought to be categorized into several different functions according to the subjective view of learners facing them however, the functions of following utterances are surely able to be determined as one. Thus, this paper created 'formation offer - segmentalized responses' so that it focuses on the diversity of reactions.

For this purpose, three textbooks of Korean middle school first and second grade and two textbooks of third grade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Each dialogue is analyzed in terms of the categories of 19 adjacency pairs introduced above. Moreover, it also analyzes first throughout third grade middle school textbooks of 2007 revision according to the identical conditions in order to find out difference and similarity between 2007 and 2009 national curriculum revisions.

The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ighteen types of adjacency pairs were found in the dialogues of the textbooks of 2009 revisions.

Among 2201 categorized adjacency pairs, 'question-response(1251)'. 'suggestion-accept/reject/no-response

(212)', ' request-accept/reject/confirm(166) account for 70%.

In comparison to 2007 revision, it resulted that the top three most frequently discovered adjacency pairs forms are identical to those of 2009 revision.

Interestingly, 'Information offer-admiration', 'Information offer-Information offer', 'advice-accept/reject', 'consolation/encouragement-appreciation' ranked the same as 2009 revision. Thus, it conclud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diversity and distribution between the textbooks of 2007 and 2009 national curriculum revisions.

Considering the results above, this paper makes a suggestion to the further textbook revision to contribute to students' conversation ability.

It should distribute diverse adjacency pairs evenly so that students have chances for the equal exposure to diverse adjacency pairs.